



보도 일시	2022. 6. 17.(금) 11:30	배포 일시	2022. 6. 17.(금) 11:30
담당 부서	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장 김혜정 (053-282-0121)
		담당자	주무관 서해준 (053-282-0126)

## 올 여름 폭염 !! 폭염 영향예보로 안전하게

-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(폭염주의보) 발표(작년(7.8.)보다 21일 빨라)

- 대구지방기상청(청장 서장원)은 대구와 경북 일부내륙지역에 20일(월)까지 33도 이상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어, 올 들어 첫 폭염 영향예보 「주의단계」를 17일(금)에 발표하였다.
    - 폭염 영향예보 발표 지역(보건분야 일반인기준)
      - 주의지역: 대구, 구미, 경산, 성주, 김천, 의성
      - 관심지역: 영천, 군위, 청도, 고령, 칠곡, 상주, 예천, 안동, 영주, 청송, 영양평지, 영덕, 포항, 경주, 경북북동산지
  -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으로 인한 영향이 큰 6개 분야\*에 대해 예상되는 위험 수준과 대응요령 등을 포함한 영향정보를 제공한다.
    - \* 6개 분야: △보건 △산업 △축산업 △농업 △수산양식 △기타
  - 폭염 영향이 예상될 때 지역별 폭염 영향정보를 하루 전날 오전 11시 30분에 폭염 위험수준을 4단계(△관심 △주의 △경고 △위험)로 구분하여 제공한다.
  - 특히, 4단계 위험 수준을 통해 폭염주의보 발표 이전(관심)의 위험뿐만 아니라, 폭염이 지속되어 매우 심각한 위험 초래할 수 있는 경우(위험)에도 영향 정보와 대응요령을 제공한다.
- 서장원 대구지방기상청장은 “케이블 TV 자막방송, 시내 대형전광판 표출, 야외근로자 및 취약계층 점점 지원 등 폭염정보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지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